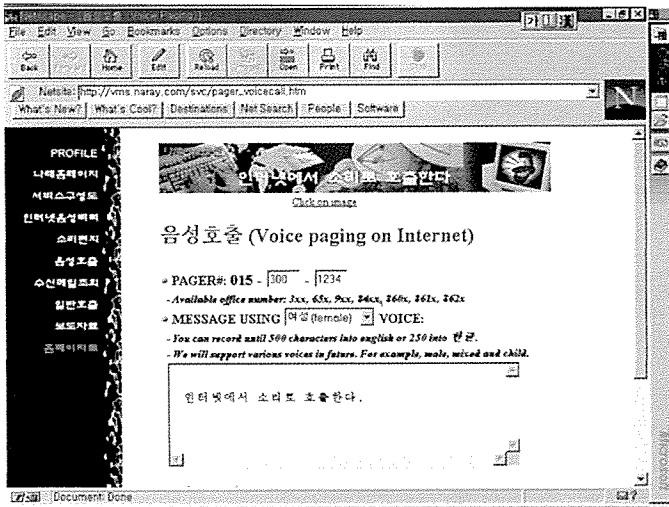


나래이동통신, 웹 음성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무선호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자호출을 하면 호출내용이 음성으로 바뀌어 뽀뽀 음성사서함을 통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웹 음성호출서비스가 등장한다.

나래이동통신은 PC통신 등의 전자메일내용을 음성으로 변환, 음성사서함을 통해 제공하는 '소리편지 서비스'를 개발한데 이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ray.com>을 통해 웹 음성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호출기능에 문자-음성변환시스템(TTS)기술을 첨가함으로써 문자로 호출하면 음성으로 바뀐 뒤 음성사서함에 녹음시켜 가입자가 전화를

통해 호출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 숫자호출기를 갖고 있는 가입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 이를 음성사서함으로 녹음하여 전달해 줄 수 있다.

또한 웹 호출서비스는 문자서비스 고 객을 위해 5분 단위로 3차례까지 호출해주는 반복호출, 필요한 일시에 호출해주는 예약호출, 최대 5명까지 한번에 호출해주는 동시호출 등 부가서비스와 부재중 안내, 수신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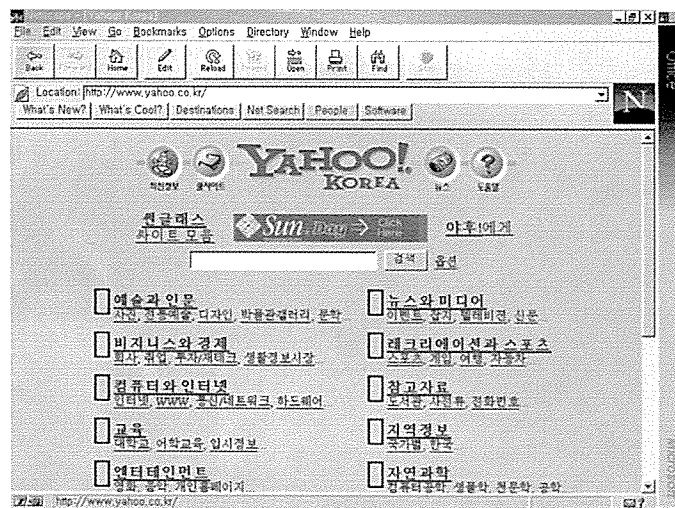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래이동통신측은 이동중에 PC가 없어도 메일을 받을 수가 있으며,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상대방에게 문자로 호출하면 음성으로 전환, 메시지를 전달해줌으로써 의사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인 역시 전자메일이나 문자호출이 오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 불편함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야후코리아'

한국판 '야후'를 통한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장비 전문 유통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야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야후코리아'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는 올 상반기부터 인터넷 업무를 전담할 인터넷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인터

넷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조직 강화에 힘써 왔으며 최근엔 이를 독립해 야후코리아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다.

야후코리아는 미국 야후, 일본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코리아, 야후재팬의 공동합작형태로 자본금 8억 5천만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대표이사는 현 소프트뱅크의 엄진섭 상무가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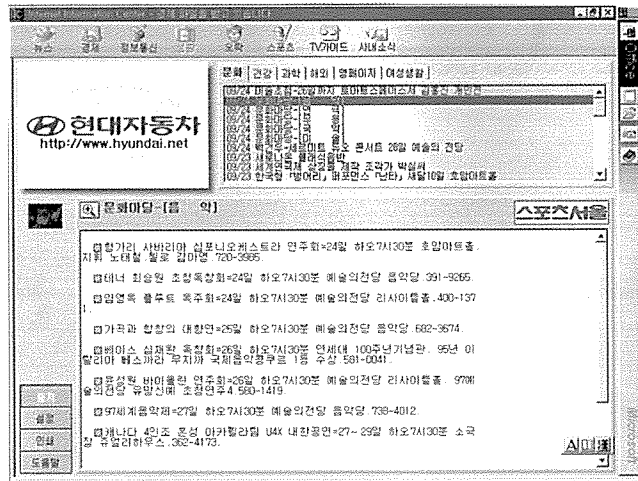
야후코리아의 사업방향, 서비스 내용, 광고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신라호텔에서 야후 창업자인 제리양과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 전격 발표했

으며 현재 한국판 야후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작업은 완료돼 내부적으로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이미 광고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코리아는 최초 3만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만5천개 규모의 사이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1년 후엔 9만개 이상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확장될 계획이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글 자연질의어 및 유의어 검색, 맞춤법교정 검색, 발음유사 검색 등을 지원하는 '서칭 서비스', 체계적인 카테고리 분류에 따라 간편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카테고리링 서비스', 각 사이트의 특징과 내용을 검색어 중심으로 간략

하게 설명해 놓은 '사이트 소개 서비스', 광고주를 직접 연결해주는 '광고 서비스' 등이다.

주문형 뉴스정보 프로그램 IIC 백만회 돌파



국내 최초로 인터넷 주문형 뉴스정보프로그램인 IIC(Internet Information Center)가 접속횟수 백만회를 돌파했다.

(주)NC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IIC는 총 7개 채널에 각각의 세부 섹션으로 분류되는 풍부한 내용과 범위를 자랑한다. 현재 동아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점차 전체 일간지

로 확대할 예정이다.

IIC 3.0버전은 256컬러 지원, 프린트기능 추가, 폰트 조절기능, 화면보호기 기능 및 암호화 추가, 손쉬운 설치 기능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이전 버전보다 향상됐다.

특히 NCK텔레콤은 만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설치하여 많은 사용자 접속으로 인한 속도저하 현상을 해소했다. 한편 NCK텔레콤은 향후에 발표될 다음 버전에는 증권정보, 날씨정보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타 3버전의 최초 1일 접속횟수는 25만여회였으나, 불과 2달 만에 4배 증가한 백만회를 돌파하는 놀라움을 보였다.

NCK텔레콤은 현재 IIC 1일 사용자수는 3만5천여명이며, 1일 접속횟수는 백만회를 상회하고 있다.

- 2만개 이상의 주문형 뉴스 사이트의 주문형 2명 이상
- 차이나, 기타 제품 문의부 26인 최속연속
- [기타] 和東亞(한글) 3개 언어 - 1인사 부도내 4개 언어
-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뉴스 NCKTelecom

또한 1일 신규가입자는 5백명선에 이르며 주 사용 연령층은 20대 초반에서 5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트라넷 환경에서 푸시기술은 활용분야가 다양하다. 사내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올리면 이 게시물이 모든 사원에게 자동배달되는 경우가 그 하나의 예이고, 사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된 경우 사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배달해 주는 기능도 매우 긴요하게 사용된다.

IIC의 인트라넷 버전인 IB-Server(Intra Broadcasting Server)는 IIC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부서별 또는 전체에게 전해줄 공지사항을 사원들의 PC로 자동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푸시기술을 이용한 이들 주문형 뉴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수익은 뉴스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광고를 통해서 충당된다. 따라서 이들 주문형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신청해 받느냐가 광고주를 설득할 주요 자료가 되어 사용자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된다.

NCK텔레콤은 IIC가 푸시기술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광고(초당 10프레임으로 약 30초 광고)를 사용, 기존의 배너 광고보다 동화상이므로 주목률이 높고 화면보호기 형태로도 반복 노출되며 세분화된 소비자에게 다양한 마케팅 전개가 용이하다고 말한다. 또한 광고 접속횟수가 높아 광고주에게 호응이 좋다고 한다.

교통신호기 삐삐제어

출퇴근시간 아무리 차가 밀려도 고지식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 빨간불을 켜대는 교통신호기보다 알미운 것이 없다. 물론 방법은 있다. 일반신호기를 교통량에 따라 조절되는 전자식 신호기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전자식 신호제어기의 가격만도 일반제어기의 5배인 7백50만원에 달해 신호기의 교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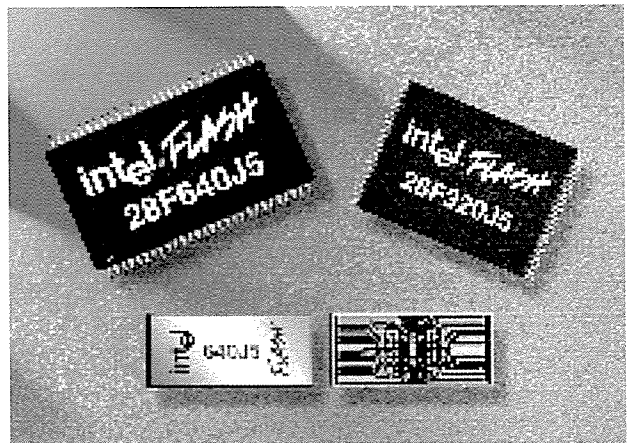
이같은 문제를 무선호출기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순재박사팀은 최근 기존 일반교통신호기에 무선호출모듈을 달아 고가의 전자식 교통신호기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무선호출방식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교통신호제어기는 중앙통제소에서 삐삐를 치듯이 교통신호기에 부착된 무선호출기에 전파를 보냄으로써 교통량에 따른 신호를 원격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돼 온 전자식 교통신호기는 모뎀을 통해 유선으로 신호를 조절하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선호출기를 일반신호기에 부착하면 별도의 케이블설치비가 들지 않아 성능개선을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20~30만원의 무선호출모듈 설치비용만으로 전자식 교통신호기와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인텔, 새 컴퓨터칩 개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사는 컴퓨터 기능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새로운 칩을 개발했다 '스트레이타 플래시'로 명명될 이 새 칩은 메모리 셀, 혹은 트랜지스터의 정보보유 용량을 종전보다 두배로 늘리게 된다고 인텔측은 밝혔다.

인텔의 고든 무어 명예회장은 "이번 새 칩의 개발은 칩의 기본구조를 바꿔 컴퓨터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PC, 비디오 게임, 휴대전화, 이동전화기, 디지털 사진 기술 등 여러 분야로 기술응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칩의 개발로 지금까지는 18개월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능이 배로 늘어나던 것이 앞으로는 9개월마다 배로 늘어나 컴퓨터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컴퓨터 칩의 85%를 생산하고 있는 인텔의 이번 새기술은 컴퓨터가 꺼져있을 때도 정보보유기능을 수행하는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변화를 시도한 결과, 과거에는 똑같은 공간에 되도록 많은 셀을 집어넣도록 한 반면 새 칩은 하나의 메모리 셀에 하나의 정보 대신 두개의 정보를 넣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새 칩은 64메가비트의 용량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29달러, 일본에서는 32달러에 판매된다.

노헨즈마우스 '푹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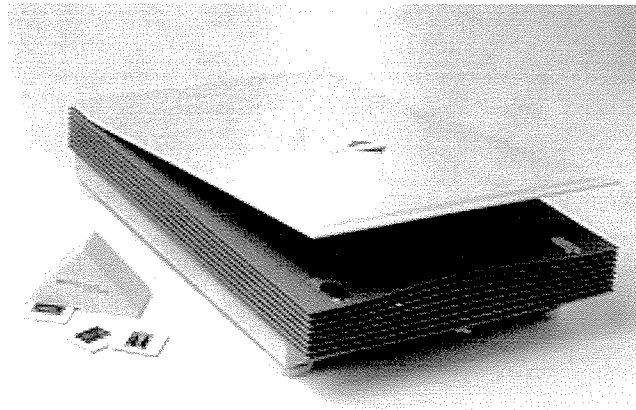


Hunter Digital사에서 개발한 노헨즈 마우스는 손을 쓰지 않고 발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어 키보드와 마우스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손목과 손가락 부상을 예방한다. 물론 발로 조작하기 때문에 손보다 정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클릭과 드래그를 발로 조작할 수 있어 손의 피로를 덜어준다.

장애자들도 요긴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책상공간을 넓히고 작업을 하면서 전화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모니터와 떨어져서 작업을 할 수 있어 시력보호에도 좋다.

운동삼아 발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재미도 좋을 듯 싶다. 가격은 2백달러.

한국HP, '스캔젯 6100C'



한국HP는 전문가용 컬러 평판형 스캐너인 스캔젯 6100C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중고가형 스캐너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스캔젯 6100C는 HP가 최근 개발한 지능형 스캐닝 기술 Intelligent Scanning Technology를 적용한 제품이다.

지능형 스캐닝기술은 자동 조명제어를 통해 컬러의 안정성을 증가시켰고 컬러의 렌더링 기능을 위한 SRGB를 추가해 보다 정교하고 일관성있는 컬러 매칭을 할 수 있게 했다. 스캔된 이미지에 물결무늬와 같은 파문 발생 방지 및 파일 크기

를 축소해 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스캔젯 6100C는 600dpi의 광학 해상도를 지원하고 최대 2,400dpi까지 스캐닝이 가능하다. 1억컬러와 1024그레이 레벨을 지원하며 1%단위로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다.

이 스캐너는 IBM기종 뿐만 아니라 매킨토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35밀리 HP슬라이드 어댑터를 기본으로 제공해 슬라이드 필름 또한 스

캔할 수 있다.

그리고 스캐너한 파일을 자동적으로 PDF 파일로 생성해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어도비 아크로바

트 3.0 및 윈도우 코렐 웹 그래픽 스위트를 제공해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 흥미로운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글 OCR아프미 3.0 및 윈도우 코렐 포토포인트, 매킨토시용 어도비 포토숍 LE 이미지 편집 패키지, HP스캔젯 카피 유틸리티 등이 제공된다. 옵션으로 A4 크기의 투명필름을 스캐닝할 수 있는 어댑터와 50페이지 자동 문서 공급기도 사용할 수 있다.

스캔젯 6100C의 가격은 90만원선이다. ㉞